태국 불교계, 반정부 시위 참여 금지령

국가불교사무소, "시위 참여시 승려직 박탈"

'위장승려' 가능성도 제기돼
원칙적으로 정치 참여 금지
일부 시위 참여한 스님들은
"민주주의에 힘을 보태겠다"

박정현 객원기자



시위에 나선 태국 스님들. 사진출처=VICE

태국 국가불교사무소(NOB)가 승려들의 반정부 시위 참여를 금지하고 나섰다. 이를 어길 시 승려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태국 현지 언론 '타이PBS' 등 외신이 11월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NOB는 최근 전국 승려들에게 군부 정부 및 왕권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승려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찰 재량에 따라 승려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NOB는 시위 현장에서 승려들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른바 '위장 승려'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이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승려들의 사회 ·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승려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법령이 1995년 제정됐다.

그러나 몇몇 승려들은 정부와 불교계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위에 참석한 한 승려는 "우리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나서선 안 되지만, 올곧은 권리를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가 성공하길 원한다"며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Vice News'를 통해 말했다. 그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해달라고도 했다.

또 다른 스님도 "반정부 시위는 인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승가 공동체 내에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정의를 요구할 때 우리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스님은 또 "승려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의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시위대를 체포한다. 현재 태국 사회는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수배령이 내려진 스님도 있다.

프라 판야 시선(Phra Panya Seesun) 스님은 "경찰로부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받았다"며 "그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고 'Vice News'에 호소했다.

시선 스님은 "젊은 승려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면 정부로부터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경찰의 수배망을 피해 망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국 반정부 시위는 지난 2월 태국 법원이 진보 신진 정당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을 해산시킨 것이 단초가 됐다.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사임, 권력에 대한 추가 제한 군주제, 그리고 새로운 헌법의 초안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물러나지 않아 시위대 규모는 점점 확장되는 추세다. 다만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 시위'로 진행되는 중이다.

사찰 철거 후 '재건축' 약속 어긴 중국

中장시성, 700년된 사찰 철거
재건축은 중단…반발 탄압도


지역 당국에 의해 동원된 인력들이 사찰의 새 구조물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 사진출처=bitterwinter

중국 남부 장시성이 700년 된 사찰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겠다는 재정비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사찰 측이 이에 동의해 철거한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철거 후 1년 반 만에 재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종교 · 인권 잡지 '비터윈터(Bitter winter)'는 11월 18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장시성에 위치한 백룡사는 7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8일 지자체가 지역 사찰들의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철거됐다"며 "지역 당국은 이를 막아서는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백룡사의 불상 등 불교 건축물은 허름한 창고에 임시 보관됐다. 사찰 관계자는 대신 철거 장소에 마오쩌뚱 동상을 설치했다. 그 옆쪽으로는 '공산당에 충성하고, 당을 영원히 따르며, 당의 명령에 순종하고, 당의 사상을 연구하라'는 내용의 슬로건도 게시했다. 사찰의 재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당국과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사찰의 이 같은 노력에도 지역 당국은 철거 후 재정비 사업을 중단했다. 기존 사찰이 철거된 후 최근까지 1년 반 동안 새로 지어진 구조물은 2m 높이의 벽에 불과했다. 지역 당국은 지난 10월 이마저도 인력을 동원해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아서려는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과 충돌이 발생했으며 동원된 인력들은 신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화' 방침에 따라 불교 · 기독교 · 도교 · 힌두교 등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감행 중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쓰촨성 불교학원' 등이 철거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성소수자, 사후에도 차별 받는가?

日불교계, '평등' 주제로 심포지엄

일본 불교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해결방안 그리고 사후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11월 14일 일본의 '블로고스'는 일본 불교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해결방안 그리고 사후에 대한 논의를 보도했다.

지난 11월 5일 59개 종단과 불교계 단체 등으로 구성돼 일본불교를 대표하는 '전일본불교회'는 '불교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등'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일본불교회 이사장 토마츠 요시하루 스님은 "불교는 성별, 사회적 지위, 제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터부시 했다. 평등해야할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의 방향이 달랐다"며 심포지움의 개최 의의를 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법 개정이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결혼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 상속을 비롯한 여러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일본불교회 주최 '불교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등' 심포지엄 전단. 사진출처=전일본불교회

토마츠 이사장은 특히 사후에 남녀를 구분 짓는 계명을 지적했다. 토마츠 이사장은 "아무리 스님이 좋은 계명을 주더라도 호적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이는 죽어서 만큼은 남성으로 대우받길 원할 수도 있다"며 "살아생전 사찰에 자신의 의사를 전하거나, 주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다면 계명의 부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며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도쿄예술대 학생들, 1300년 전 불상 복원

일본 · 중국 · 대만 합작해
토다이지 '집금강신' 복원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실물 복원된 집금강신 사진출처=닛폰닷컴

도쿄예술대학교 연구생들이 토다이지(東大寺)의 집금강신 불상을 복원해 화제다. 특히 이번 복원은 일본, 중국, 대만 3국의 학생들이 합동으로 복원해 더욱 뜻깊다. 지난 11월 13일 일본의 '닛폰 닷컴'은 도쿄예대 연구생들의 불상 복원을 특별보도했다.

이번에 복원 제작된 집금강신 불상은 일본의 국보로 일본에서도 희귀한 8세기경의 소조건칠 불상이다. 소장처인 토다이지의 전승에 따르면 이 불상은 사찰이 창건되기 이전에 조성됐으며 초대 주지를 지낸 료벤 스님의 원불로 전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 불상은 감실에 소중히 봉안되어 토다이지에서도 1년에 단 하루만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덕분에 높이 170cm의 커다란 소조상은 채색을 포함한 모든 보존 상태가 뛰어나 미술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복원팀은 "집금강신상이 입고 있는 갑옷의 형식으로 보아 당시 실크로드에서 무역상으로 활약했던 이란계 소그드인 무장을 본뜬 것으로 추정한다. 매우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허리 장식 등에서 불상의 제작이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실크로드의 어느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조건칠 제작법은 당시 선진국인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후에 일본에 전해진 제작법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불상복원은 도쿄예대의 원로교수 야부우치 사토시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야부우치 교수는 토다이지가 소재한 나라시의 마스코트 캐릭터 '센토군'을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야부우치 교수는 10여 년전 종합 과학조사로 실측된 집금강신의 데이터를 이용, CG를 이용해 영상복원을 마친 후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실물 복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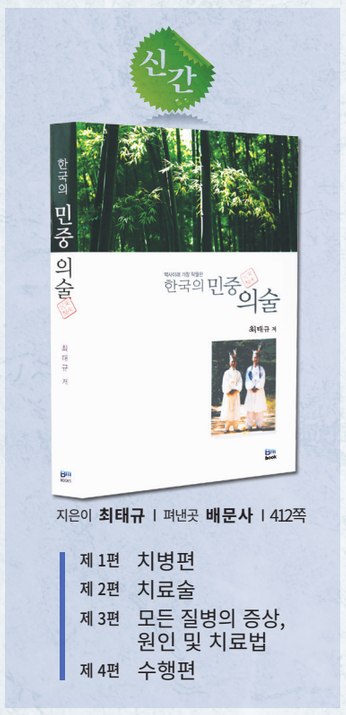
이번 복원작업에서 실제 제작을 맡은 연구생들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합쳐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정예. 이 중 중국과 대만에서 온 유학생 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 스텝으로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함께했다.

불상 복원의 실무를 맡은 시게마츠 유지 박사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건칠소조라는 제작기법과 보존 및 복원법을 1300년 전의 보은이라 생각하고 유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이 자국의 문화재 보호 및 복원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복원작업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복원 작업은 불상이 조성된 당시의 극채색과 사용된 안료들을 이용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나지 않는 일부 석채안료의 경우 중국에서 구해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채색팀 주임 이이누마 하루코 강사는 "1300년이 넘은 불상치고는 보존상태가 좋지만 채색의 열화가 일부 진행되어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연구실의 일본, 중국, 대만 3국의 학생이 모여 불상을 채색하는 모습은 1300년전, 어느 불상공방의 환영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집금강신상의 채색에는 운간법(繧繝法)이라는 특수 채색법이 사용돼 채색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전했다. 복원된 집금강신상은 내년 봄 원본이 소장된 토다이지에 봉안되며 오는 11월 19일부터 도쿄예술대학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김민재 객원기자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